파월의 관망 기조에 금리 진정 불구, 기술주 약세에 증시 혼조 마감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증시 혼조, 두드러진 기술주 약세

- 미 증시는 DOW +0.11%, S&P500 -0.39%, NASDAQ -0.73% 혼조. 금융, 통신서비스 강세, 기술, 산업재 약세
- 터보퀀트발 충격이 마이크론(-9.9%) 등 메모리반도체 투자심리 압박. 더해, 분기말 리밸런싱 수요 여파로 기술주 낙폭 확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4.2%, SMH(반도체 ETF) -3.1%
- 빌 애크먼은 수년만에 우량주를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현 시장을 평가. 지정학 우려는 과열되었다고 발언
- 한편,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나스닥100 지수 편입 패스트트랙 규정이 마련되면서 기존 최대 1년까지 소요되던 편입 소요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파월 발언에 금리 인상 가능성 진정

- 파월 의장은 이란전쟁발 에너지 쇼크에도 불구, 장기 인플레 안정을 확신하며 관망 기조 유지. 지금 인상시 추후 긴축 효과가 나타날 시기에 경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발언
- CME FedWatch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5% 이내로 크게 축소. 국채금리 하락 10Y 4.351%(-8.9bp), 2Y 3.838%(-7.8bp)

트럼프 양동작전에도, 종전은 안갯속 WTI $105(+5.4%)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긍정적 합의 진행중이라며 전쟁 종식 임박 시사한 한편, 협정 체결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과 모든 담수화시설을 파괴하며 마무리하겠다 경고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 의회 승인 완료
-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미사일 능력 약화 등 전쟁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으나, 종전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발언

특징주: 기술주 약세 가운데, 사이버보안주 센티 회복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MU	마이크론	-9.9%	터보퀀트발 메모리 수요 감소 및 Peak-out 우려 지속되는 가운데, 분기말 반도체 리밸런싱 영향에 섹터 동반 약세
PANW	팔로알토 네트웍스	+5.0%	니케시 아로라 CEO의 $10M 규모 자사주 장내 매수 소식에 강세. '18년 취임 초기 이후 첫 매수 사례로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을 시사. 한편 크라우드스트라이크(+2.8%)에 대해 울프 리서치는 Outperform으로 투자의견 상향 조정, 모건 스탠리는 Top Pick으로 제시하며 주가 강세. 전일 앤트로픽발 사이버보안 무용론 우려를 딛고, 시장은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대가 결국 보안 솔루션의 구조적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
BX	블랙스톤	+3.3%	역대 최대 규모($6.3B)의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BXLS VI) 결성 완료 소식 및 미 노동부의 퇴직연금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투자 시장 확대 기대감에 강세. 이번 펀드는 직전 대비 40% 이상 확대된 규모
AA	알코아	+8.2%	알루미늄 가격 상승 전망에 주가 강세. 지난 주말 이란의 중동 알루미늄 제련 시설을 공격하며 글로벌 공급의 9%를 담당하는 생산 거점이 타격을 입음. LME 알루미늄 가격이 4년래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마비 우려 확대
SYY	시스코	-15.3%	제트로레스토랑디포를 $29.1B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주가 급락. 과도한 인수 비용과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희석 우려 부각